

대한상의 브리프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2017년 10월 16일



편집자주

적절한 휴식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번 호는 ‘휴가 후진국’으로 평가되는 일본에서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쉬는 방식’ 개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근로시간 다이어트 中

‘프로야근러’.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어쩌다 칼퇴근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신조어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중요시한다. 한 조사에서도 좋은 직장의 1순위 조건으로 ‘근무 시간 보장’이 꼽혔다.('17년, 잡코리아)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프로야근러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다.

장시간 근로는 일본에서도 큰 이슈다. 일본의 연차 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10~20일이지만, 2015년 기준 평균 휴가 사용 일수는 8.8일이다. 2004년의 8.4일과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연차휴가 평균 사용률도 2004년 46.7%, 2015년 48.7%로 절반 이상의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日 정부의 ‘쉬는 방식’ 개혁

일본 정부는 ‘휴가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쉬는 방식’을 적극 개혁하고 있다. 잔업 등 장시간 근무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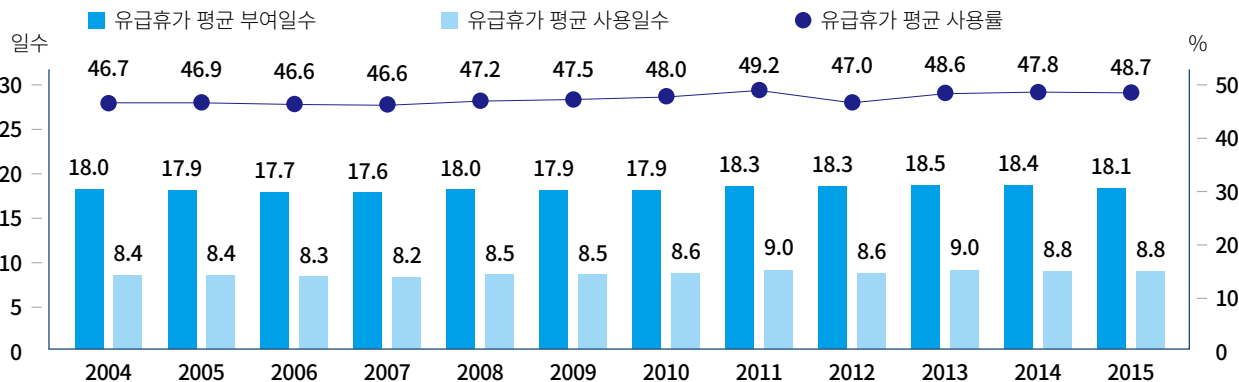
이에 ‘2020년까지 휴가 사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휴식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 자가진단 개선지표

후생노동성(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은 2015.1월 「일하는 방식 및 쉬는 방식 개선 지표」를 개발해 기업



[일본의 유급휴가 평균 사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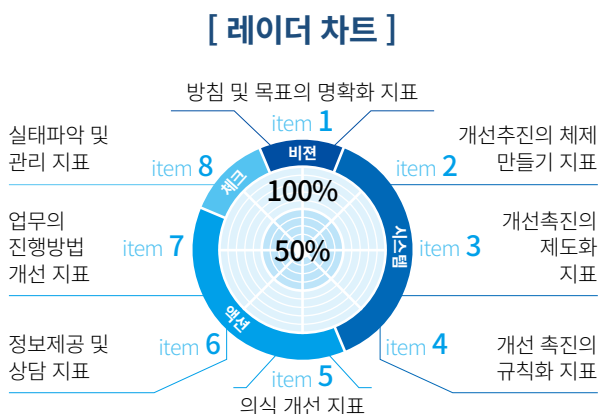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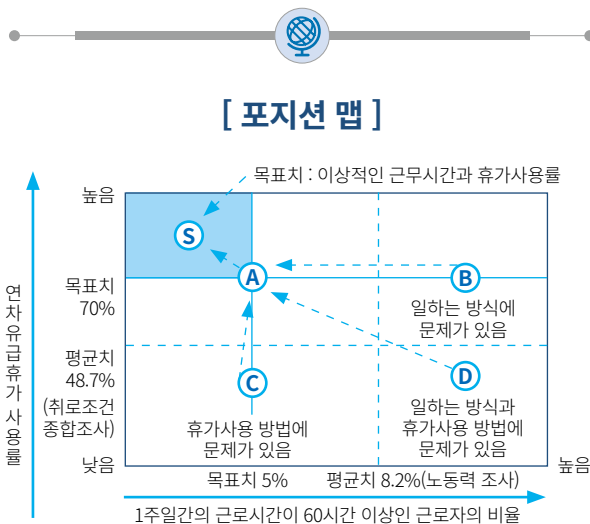
※ 출처 : 日 후생노동성 '취업조건 종합조사 : 결과 개요'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 지표를 활용해 근로 및 휴식시간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 진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지표는 ‘포지션 맵’, ‘레이더 차트’로 구분된다. ‘포지션 맵’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문제인지, 휴가 사용 방법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Premium Friday)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조기 칼퇴’하자는 캠페인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장시간 근무 해소와 개인소비 활

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참여율은 8월 현재 1.4%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직원의식 개선

근로와 휴식에 대한 직원들의 잘못된 인식도 장시간 근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는 ‘직장 내 의식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키즈 위크(Kids-week)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키즈 위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초·중등학생이 여름방학 일부를 학기 중에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름방학 5일을 학기 중에 사용하면 부모도 함께 장기 휴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기업 사례

일본 기업들도 ‘쉬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븐&아이 홀딩스 (종업원 55,364명 / 유통)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아이 홀딩스는 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서 직원 전체가 일제히 휴가를 가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휴가일은 부서별로 거래처 휴업일, 결산일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이 상사 눈치를 보며 휴가를 가야하는 부담을 없앴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가네마쯔 (종업원 6,727명 / 종합상사)



가네마쯔는 2016.4월부터 ‘브론즈워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브론즈워크 제도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평일을 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직원들은 연초에 미리 4일 이상의 휴가일을 계획하며, 이 중 2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조요은행 (종업원 3,281명 / 은행)



조요은행은 정규 근무시간을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단축했다. 다른 기업의 근무시간인 8시간에 비해 40분 짧다. 장기 휴가도 보장한다. 연속휴가제도도 입으로 직원들은 5일간 연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속연수 17년, 22년, 27년의 장기근속자에게는 각각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아스텔라스 (종업원 5,777명 / 의약품 제조)



아스텔라스는 매주 금요일 모든 직원이 조기 퇴근하는 패밀리 프라이데이(Family Friday)를 실시하고 있다. 월요일~목요일까지는 8시간 정상 근무하지만 금요일은 1시간 25분 단축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다.

가루비 (종업원 3,860명 / 식품제조 및 판매)



가루비는 ‘일과 생활 균형이 좋은 기업’으로 유명하다. 플렉스타임제(자율 출퇴근 시간제), 재택 근무제, 조기 퇴근의 날 등의 시행으로 근로자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2017.4월부터는 모든 출근일에 대해 모바일 워크와 재량 근무제를 적용해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무하고 있다.

‘쉬는 방식’ 개혁 효과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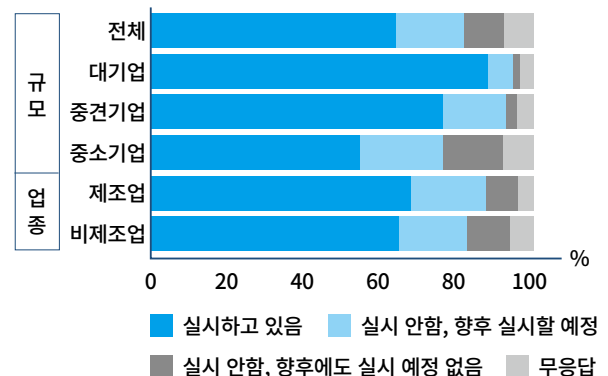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및 쉬는 방식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의식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일본생명과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17.8월 현재 쉬는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63.8%로 나타났다.

향후 휴가 확대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기업도 응답기업의 18.2%였다. ‘쉬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거나 개선하겠다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82%나 된다는 의미다.



[‘쉬는 방식’ 개선에 대한 일본기업 응답]



일본 기업들이 쉬는 방식을 개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향상’(57.3%)과 ‘종업원 만족도 및 근무의욕의 향상’(57.3%)이 꼽혔다.

OECD 통계(’16년)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69시간)은 일본(1,713시간)보다 356시간이나 더 길다.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와 쉬는 방식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0월 16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3.0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6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31	1,161	1,133	1,125	1,130	1,134	1,131	1,132
원/엔	934	1,068	1,029	1,003	1,019	1,009	1,030	1,022
원/위안	180.1	174.4	164.5	163.5	166.1	167.5	169.2	172.3
원/유로	1,255	1,283	1,213	1,245	1,269	1,306	1,337	1,348
유가(Dubai)	32.2	53.8	50.2	50.1	46.5	50.4	49.3	55.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1.9	3.0	3.5	2.6	1.7	2.0	2.6	-
소매판매	4.1	4.3	2.6	1.4	1.1	3.5	0.8	-
설비투자	6.9	-1.3	14.3	20.0	18.6	25.1	13.2	-
수출	-8.0	-5.9	23.8	13.1	13.4	19.5	17.3	35.0
수입	-16.9	-6.9	17.3	19.1	19.8	15.5	15.3	21.7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